

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12월 1차 (2019.12.1.~ 12.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요청

- ☑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법원 소속의 독립 위원회인 양형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0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03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 ☑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2018년 3월 출범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 기구로 활동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2019.12.25)으로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로 통합·운영됨.

- 이에 따라 향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다

- ☑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해 공청회 개최

- 이번 계획은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과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 수립 이후 3번째 기본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1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21

금융권 기업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가?

☑ 여성가족부는 본원 이승현 부연구위원팀이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통계를 활용하여 금융권 종사자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금융권 부장급 남녀 330명을 대상으로 유리천장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

- 인력현황 조사결과, 금융권 1,483개 기업의 약 28만 명 중 남성은 53.1%, 여성은 46.9%를 차지하였으나, 부장급 이상 남성 관리자는 21.9%, 여성 관리자는 3.3%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남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1.16]
http://www.mohw.go.kr/react/al/saI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396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3,833개사로 늘어

☑ 여성가족부는 2008년 14곳으로 시작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이 작년(3,328개)보다 15.2% 증가한 3천 833개 기업·기관으로 확대되었다고 발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1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34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 위한 해결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와 ‘E-6(예술홍행) 비자 자격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1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37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 통계청이 2019년 상반기(4월)에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별 여성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낮게 나타남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9.12.06.]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086&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18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 통계청이 저출산 주요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한 결과, 2018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전년대비 4.2% 감소하였고,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체의 47.5%로 전년대비 2.7%p 상승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9.12.1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5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2019- 12-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정작 아동학대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소속된 학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범죄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2인)	2019- 12-04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벌금형이 징역형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할 수 있도록 벌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의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의 권익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2019- 12-04	현행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죄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입법적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례를 따라, 현행법에서 열거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2019- 12-04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한 처벌을 일반 「형법」보다 중하게 취급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모는 「민법」상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아동복지법」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등 미성년 자녀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젠더 폭력·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2019- 12-05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낮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9- 12-0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해당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9- 12-06	2016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일괄 10년으로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바 있음. 이에 '18.1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를 개정, '18.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취업제한 기간을 판결 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 시행 전 선고를 받고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 위헌 결정 전 선고를 받고 위헌 결정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2019- 12-06	어린이집,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배포

국민 절반 이상(56%),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 의무화 찬성

- 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달 중순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2020 총선 성평등 현안 조사'결과 발표
-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성평등한 국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에 임하는 정치권과 정당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 수행을 환기하려는 취지에서 기획

참고자료

- [2019.12.05.]
<https://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5014>

청년층 공정성인식에 대한 성별차이 확인.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가 성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옴(여85.5%, 남74.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청년층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 '젠더 갈등' 담론을 대체할 새로운 인식틀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포용, 공정과 젠더를 말하다-청년세대의 인식과 경험 속에서"에 대한 제11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가 성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와(여85.5%, 남74.4%) 청년층 공정성인식에 대한 성별차이 확인

참고자료

- [2019.12.11.]
<https://kwidi.re.kr/plaza/bodoView.do?p=1&idx=125038>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정책 토론회	12.04	뉴시스	성평등 관점으로 본 국가 예산...성인지예산제도 토론회 개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4_0000849983&clD=10201&plD=10200
	12.04	뉴스1	'세출예산 분석'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 나선다	http://news1.kr/articles/73784923
	12.04	정책브리핑	세출예산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한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415&call_from=naver_news
	12.04	머니투데이	[오늘의 국회토론회-5일]성인지 예산제도 성과관리 토론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419337615462
	12.05	뉴시스	내년 정부예산 500조 중 여성폭력 관련 예산 0.03% 불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5_0000851126&clD=10201&plD=10200
2020 총선 성평등 현안 조사 결과	12.05	한국일보	국민 2명 중 1명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50908782773?did=NA&dtype=&dtypecode=&prnewsid=
	12.05	MBN	여성정책연구원 "국민 56%, 여성 지역구 후보 30% 이상 의무 할당 찬성"	http://www.mbn.co.kr/news/society/4001596
	12.05	연합뉴스	국민 56%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할당 찬성"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038300005?input=1195m
	12.05	https://www.yna.co.kr/view/GYH2019120500600044?input=1363m	가정폭력 피해자 80% 여성... "남성 가해자 절대 다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5/98527880/2
	12.05	뉴시스	국민 56.4%, 21대 총선에 여성 공천 30% 찬성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5_0000851031&clD=10201&plD=10200
	12.05	http://www.newsis.com/view/?id=NI20191205_0000441748	가정폭력, 열에 여덟은 부부·연인 관계...피해자 80%는 여성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64886&code=61121111&cp=nv
	12.05	BBS	국민 56%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할당 찬성"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378
	12.05	베이비뉴스	국민 10명 중 8명 "여성비하·혐오 발언 후보 안 뽑겠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72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12.08	경향신문	[단독]노동자의 노동자 '이모님', 헌법재판소 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80903001&code=940100
2019년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동반관계)」 성과보고 및 토론회	12.11	정책브리핑	금융권 기업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가? 부장급 남성 31.5%, 여성 73.5%가 '그렇다' 답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87&call_from=naver_news
	12.11	아시아경제	'유리천장 존재한다' 男 31.5% 女 73.5%...실제 관리자 비율 7배 차이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1110170402795
	12.11	연합뉴스	금융권 부장급 여성 73% "사내 유리천장 존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79700005?input=1195m
	12.11	뉴시스	女 기업 임원될 확률 0.9%... "男문화 탓"vs "女후보 없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1_0000856862&clD=10201&plD=10200
	12.11	머니투데이	금융회사 부장님께 물어보니...남성 32%가 "유리천장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109464084513

2019년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동반관계)」 성과보고 및 토론회	12.11	뉴스1	금융기업 여성관리자 10명 중 7명 “유리천장 있다”	http://news1.kr/articles/73790556
	12.11	서울신문	금융권 부장급 남성 31.5%, 여성 73.5% “유리천장 있다”고 답변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1500111&wlog_tag3=naver#csidx6c7ef622f96b32b94aa8a39f17b20f2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1500111&wlog_tag3=naver
			[김균미 칼럼] 유리천장에 낸 실금들, 지금부터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2031012&wlog_tag3=naver
	12.11	세계일보	고위직 비율 급여자 커데... 男예겐 안 보이는 ‘유리천장’ [뉴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1513973?OutUrl=naver
	12.11	SBS	아직도 단단한 ‘유리천장’... 7년째 꼴찌 갈 길 멀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9893&plink=ORI&cooper=NAVER
			여전히 두꺼운 ‘유리천장’... 한국, 7년째 OECD 꼴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60143&plink=ORI&cooper=NAVER
제11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12.11	내일신문	청년여성(19~34세) ‘사회불공정하다’ 85.5%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4488
	12.13	문화일보	20대 여성 ‘페미니즘 지지’ 29%에 그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1301071030128001
	12.13	조선일보	20대女 30%만 ‘페미니즘 적극 지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4/20191214002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12.13	뉴스1	돈·감정·시간 소모 부담... 20대 솔로 5명중 1명 ‘연애 안해’	http://www.news1.com/view/?id=NISX20191213_0000859504&clD=10201&plD=10200
	12.15	뉴스1	차별 범죄에 울분 쌓인 한국 여성들, 80% “한국 떠나고 싶다”	http://www.news1.com/view/?id=NISX20191213_0000859823&clD=10201&plD=10200
	12.15	국민일보	우울·분노 쌓인 한국 여자들... ‘올분지수’, 20·30 여성 가장 높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33228&code=61172811&cp=nv
	12.15	글로벌 이코노믹	젊은 여성 79%,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12150855468905a218188523_1&md=20191215085929_M
	12.15	한겨레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12.15	인사이트	“20대 남성 72%, 여자친구가 ‘페미니스트’라면 헤어지는 게 낫다”	https://www.insight.co.kr/news/259266
	12.16	MBC	[이슈톡] 한국 여성들, 80% “한국 떠나고 싶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640596_24616.html
	12.16	경향신문	청년 10명 중 7.5명 “여건 ‘헬조선’.. ‘탈조선’ 하고 싶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61110021&code=940100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06	한국일보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감치 요청해도 숨으면 ‘그만’	박복순 연구위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51682040703?did=NA&dtype=&dtypecode=&prnewsid=
12.11	여성신문	1.8일마다 한 명의 여성이 믿었던 남성에게 죽었다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24
12.12	이데일리	[우리도가족①] “엄마께 여쭙봐” 대신 “가족과 의논해”	송효진 연구위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4486622717864&mediaCodeNo=257&OutLnkChk=Y
		[우리도가족②] 모든 가족 품을 ‘법과 제도’ 개선 서둘러야	송효진 연구위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12.14	경향신문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허하라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41213001&code=940100
12.15	연합뉴스	“북한 연구에서 탈북민 기억 해석은 정치적 행위”	조영주 부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27100005?input=1195m
12.15	여성신문	[여성논단] ‘피해 지원은 권리’ 못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869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본 원고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시기에 중요한 모아애착 및 모유수유 등 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집단 돌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과 안전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참고자료

- [육아정책Brief, 2019.12.16] 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3_04.jsp?mode=view&idx=28861&startPage=0&listNo=0&code=etc01&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0&listScale=0&view_level=